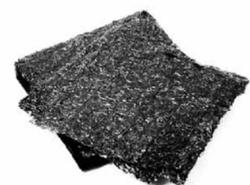


“완도 해조류는 마법의 음식”



미역



김

미국의 웰스트리트저널이 완도 해조류를 ‘마법 같은 슈퍼 푸드’로 극찬한 내용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웰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자 신문에 “이 세상에서 해조류 애호가들의 메카라는 게 존재한다며 그곳은 다름 아닌 한국일 것이다”며 세계 최초로 해조류박람회를 연 완도군을 1면 미니박스 기사와 6면 연결 기사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어 세계인의 일상 식단에서 해조류는 여전히 특이하고 생소한 것이지만 한국에서 해조류는 일종의 마법 같은 효능을 가진 음식이라고 전했다.

美 웰스트리트저널 효능 극찬 “요오드 성분 상처 회복에 탁월”
“최경주도 골프 투어때 공수”...해조류 박람회 등 집중 조명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게 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요오드 성분이 출산 시 잃어버린 혈액을 보충해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생일이면 남녀노소 구분없이 미역국을 먹는다고 전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식용 해조류 생산국으로 연간 85만t을 생산하는데 완도가 거의 절반가량을 생산한다고 보도했다.

신문 1면의 세계 각국 이색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코너에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다뤘다. 한국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어촌 완도에서는 미역, 김, 툯,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미용제품, 심지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까지 선보였다는 내용이 실렸다.

말린 툯, 다시마를 토핑으로 얹은 녹지 않는 해조류 아이스크림과 2000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박람회 개최 기념으로 따뜻한 미역국 제공 사례도 소개했다. 완도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의 고향이라고 밝히면서 그가 “골프투어에 나갈 때면 완도산 전복과 해조류를 공수해 먹었다”는 일화도 실었다.

인구 5만4000여명의 작은 어촌 완도에서 해조류는 단순한 소득원이 아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라고 했다. 완도는 해조류 양식산업으로 소득이 증가하자 일지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귀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kwangju.co.kr



다시마



툯

‘독립 무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사퇴

투표율 84.6% 역대 최고... 반대 55%·찬성 45%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개표 결과 독립 추진안이 부결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최종 개표 결과 독립 반대가 55.3%로 찬성(44.7%)에 앞서면서 독립 반대 진영이 승리했다.

독립 반대는 200만2000표로, 찬성 161만8000표보다 38만4000표가 많았다. 또 이번 선거가 치러진 스코틀랜드 전체 32개 지역 가운데 28곳에서 독립 반대파가 우세했다.

이로서 307년 만에 영국 연방과 결별하고 독립국으로서 자립하려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도전은 무산됐다. 투표율은 84.6%로 최종 집계된 1950년 총선의 역대 최고기록 83.9%를 갈아치웠다.

지난 2012년 주민투표 합의 이후 2년간 스코틀랜드를 달궜던 분리독립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은 연방 분열의 격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세 이상 주민 400만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까지 ‘스코틀랜드는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을 놓고 투표를 치렀다.

이날 개표에서 반대 의견은 클라크메너서 지역에서 54% 대 46%로 우위를 점한 것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앞서 나갔다.

독립 찬성 진영은 유권자 수가 많은 던



디와 최대 도시인 글래스고에서 승리하며 추격전을 펼쳤으나 격차를 더 좁히지 못했다. 독립 찬성파가 과반인 곳은 던디 등 4곳에 불과했다.

스코틀랜드 주도인 에든버러에서는 독립 반대가 61.1%로 찬성(38.9%)을 압도했다.

독립투표를 이끈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당수 겸 자치정부 수반은 에든버러에서 지지자들에게 “모든 스코틀랜드인은 (투표의) 민주적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치정부 수반과 스코틀랜드국민당 당수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안 부결에도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리독립 열망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주에서도 분리독립 불씨가 작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캐나다 방문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저녁(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들로 부터 꽃다발을 전달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흥군, 전라좌수영 ‘수군 직제’ 계승

조례 제정...지역주민들 임명해 유적 관리

고흥군이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수군 직제를 부활시켜 주민들을 임명하고 지역민과 함께 당시의 역사적 문화유적을 승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21일 “조선시대 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직제인 5관 5포 중 고흥

지역 흥양(옛 고흥)수군에 있었던 1관 4포의 관직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제정된다.

지금의 행정기관격인 1관에는 흥양현감이, 수군진지인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 발포진에는 조선시대 수군 관직인 사도첨사, 여도·녹도·발포 만호가 있는데 이들 관직에 지역주민을 명예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관직 계승자는 해당 마을 주민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고흥의 임진왜란 역사를 알리고 이충무공 제례에 참여하며 유적지 보존과 정비에 위한 현장관리 임무도 맡는다.

또 전라좌수영 5관 5포 소속 자치단체인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함평, 가흥, 전라좌수영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동 사업도 준비 중이다.

고흥은 이순신 장군이 수군 만호가 돼 처음 근무한 곳으로 이충무공과 함께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정운, 김인영, 배흥립, 송여중 장수 등이 첨사나 만호로 근무했던 유적이 남아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韓-캐나다 FTA 내일 서명

협상개시 9년만에...자동차·타이어·가전 등 수출 확대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오는 23일 새벽 향후 10년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한 관세철폐를 골자로 한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다.

양국 정부를 대표해 운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은 이날 캐나다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1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지난 20일 캐나다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22일(오늘)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을 함께한 뒤 협정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의 FTA 협상 최종 타결은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 만이다.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한-캐나다 FTA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안 수석은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내 99% 완

전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도 FTA가 완결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우리가 이로서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며 “미체결국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가운데 한중 FTA는 마지막 단계로 연내 타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내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철폐기로 합의돼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公 告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
(김해김씨 삼현파 호남대동보 편찬)

甲子譜(1984년 발간) 이후 30년만에 호남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① 2014년 3월 30일부터 수단을 접수하고 있어오나 일가분들께서는 서로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②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오나 종친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事務所
광주 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김병영 2층)
TEL : 062)265-8033
HP : 010-6380-4757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委員會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서정 안두경 전무 하연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동급 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한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KBC광주방송국 앞 기동교병원 아래 대성초교 사거리